



문화체육관광부

보도자료



보도일시	배포 즉시 보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 3쪽(붙임 1쪽 포함)	
배포일시	2018. 02. 22.(목)	담당부서	주독일 대한민국대사관 한국문화원	
담당과장	정가희(+49-30-26952-174)	담당자	정가희(+49-30-26952-174)	

< 민들레의 밤하늘 >

너 하나를 위해 오늘은 온 우주가 있는 듯
- 주독일 한국문화원 주최 목판화가 이철수 개인전 -

주독일 한국문화원(원장 권세훈)이 오는 3월 8일부터 4월 12일까지 문화원 내 갤러리 <담담>에서 이철수 판화전을 개최한다. 이 전시는 2017년 9월 헝가리를 시작으로 스페인, 독일, 프랑스 등 6개 유럽 주재 한국문화원에서 열리는 순회전시이다. 이번 주독일 한국문화원에서는 이철수 작가의 90년대 후반부터 2017년 사이에 발표한 작품 중 30여 점을 소개할 예정이다. 개막식은 3월 8일(목) 오후 7시이다.

한국을 대표하는 목판화가, 민중예술가 이철수

미술 교육을 받은 적이 없는 이철수는 독학으로 그림과 판화를 배우며 자기만의 고유한 작품세계와 스타일을 확립하였다. 1980년 데뷔 이후 지금까지 활발한 작품 활동을 하고 있으며 목판화 작품을 통해 당대의 현실을 비판하는 탁월한 민중예술가로 평가 받고 있다. 한국의 정서와 문화가 함께 담겨있는 그의 작품은 동양의 전통예술기법과 선불교의 명상회화기법 그리고 서정적인 시가 함께 어우러진 융복합 예술작품이다.

이철수는 개인적인 관찰과 사회적 비판을 목판화 특유의 칼 맛을 이용하여 군더더기 없이 깔끔하게 작품 속에 그려낸다. 나무위에 새겨진 그의 자기성찰과 생명의 본질에 대한 마음은 우리를 명상으로 인도한다. 이번 전시 <민들레의 밤하늘>에서 관람객들은 자연과 조화롭게 존재하는 인간의 모습과 명징한 삶의 의미를 경험하는 시간을 가지게 될 것이며 한국의 농민생활과 근현대사가 기록되어있는 판화작품을 통해 시대흐름과 문화까지도 체험하게 될 것이다.

“날카롭게 사회를 비판하는 눈과 재치 있는 표현력을 가진 작가”

주독일한국문화원 권세훈 원장은 “이철수의 작품들은 한국의 자연풍경 뿐만 아니라 이 시대의 정치적, 사회적 상황들을 이야기하고 있다. 그는 그림으로 시를 쓰며 날카로운 사회비판과 철학을 재치 있게 작품 속에 담아 우리들의 삶을 돌아보게 만든다. 이번 전시에서 작가가 경험한 지혜의 순간들을 배울 수 있기를 기대한다” 라고 밝혔다.


□ 작가소개

○ 이철수 : 1954년 서울에서 태어났으며 군 제대 후 독학으로 판화의 길을 개척해 나갔다. 1981년 서울에서의 첫 개인전 이후 지금까지 수많은 전시에 참여하였다. 1989년에는 독일과 스위스의 주요 도시에서 개인전을 가졌으며, 2011년에는 서울 관훈갤러리에서 데뷔 30주년 기념전을 가졌다. 민중 판화가로도 평가를 받고 있는 이철수는 최근 스위스 바젤 전시에 이어 러시아 사할린과 미국 시애틀 전시회를 개최하였으며 2017년 9월 헝가리를 시작으로 현재 스페인, 독일, 프랑스, 벨기에, 이탈리아 등에서 유럽순회전을 진행 중이다.

□ 행사정보

- 행사명: 이철수 판화전 <민들레의 밤하늘>
- 전시기간: 2018.3.8. ~ 2018.4.12.
- 개막식: 2017.3.8.(목), 오후 7시
- 장소: 주독일한국문화원 갤러리 <담담>
- 주소: Leipziger Platz 3, 10117 Berlin
- 입장료: 무료

붙임. 전시회 홍보물. 끝.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	이 자료에 대하여 더욱 자세한 내용을 원하시면 주독일한국문화원 큐레이터 정가희(☎ +49-30-26952-174)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	---

9. März - 12. April. 2018

Dandelion's Night Sky
LEE Chul Soo

Koreanischer Volks-Holzschnittkünstler

너
 하나같이
 기쁘게
 웃는
 얼굴
 유별
 무언가
 있어
 ...



민들레의 밤하늘
 최철수
 2004

Vernissage
DONNERSTAG
8. MÄRZ 2018,
19.00 UHR

gallery damdam
 Koreanisches Kulturzentrum
 Kulturabteilung der Botschaft der Republik
 Korea

